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한미FTA에 대한 대책으로 축산분야에 대한 정책자금 부채경감조치와 이율감면 등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FTA기금을 늘리고 지원폭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낙농가에서는 적정량에 대한 생산감축에 자율적으로 동참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 역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으로서 이러한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사이먼 쿠즈네츠 교수는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서 중진국은 될 수 있어도, 튼튼한 농업의 기반 없이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일본, 미국, 프랑스처럼 든든한 농업과 농촌의 배후를 가지고 있어야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농촌을 국토

의 주된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 업계, 농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월간 낙농육우가 국민과 낙농업 간의 건전한 대화의 틀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낙농업과 함께 무한한 발전을 거듭하는 낙농인의 대변지로서, 거센 개방화의 물결을 헤치며 힘차게 뚫어나가는 낙농산업의 앞날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난 25년의 역사를 거울삼아 우리 낙농분야의 발전을 선도하는 언론으로서 축산인의 눈과 귀가 되는 전문지가 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월간 낙농육우」의 창간 2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낙농문제 해법 찾아야...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



먼저 「월간 낙농육우」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월간 낙농육우」가 낙농육우 경영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낙농육우

인의 권익 대변에 힘써 우리 낙농육우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한 점을 치하 드립니다.

우리나라 낙농역사를 돌이켜 보면 1960년대에 낙농진흥법, 초지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정 등을 통해 낙농산업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이후 1970~1980년대 낙농업의 고도 성장기와 1990~2000년대 시장개방에 따른 격변기를 거치면서 낙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구적 노력과 정부의 정책지원에 힘입어 낙농산업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한 결과, 지금은 우유가 국민필수식품으로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WTO체제 출범 등 세계경제질서 변화는 낙농제도 개선과 낙농업의 구조조정을 요구받고 있고, 출산율 저하 등에 의한 우유 소비 정체는 안정적인 낙농경영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낙농시스템은 아직 비효율적인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낙농과 유업의 갈등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등 과거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유시장 여건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생산·공급체제 구축, 원유 유통비용의 절감, 자급사료 기반 확충, 낙농경영의 체질강화, 위생·안전성 확보 등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임에도 지금 우리는 낙농시스템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는 낙농과 유업이 서로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서로를 불신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부가 원유 수급안정, 우유 소비확대, 원유의 품질 및 안전성 향상, 경쟁력 강화 등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대책으로서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시안)을 발표한지가 근 1년이 지났음에도 각 이해 주체간 의견이 대립되어 합의안 마련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낙농 십년대계를 세운다는 생각으로 생산자와 유업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서로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낙농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낙농육우인 여러분께서도 먼 장래를 내다보고 타협과 양보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제화의 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낙농산업구조 확립을 위해 효율적인 수급관리시스템 구축, 우유 소비기반 확대, 국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에 정책의 주안점을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유·유제품의 품질 향상이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 추진과 함께 집유·가공단계의 위생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월간 낙농육우」는 낙농육우인들이 현장에서 원하는 낙농정책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와 관련업계에 전달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 냄으로써 낙농산업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월간 낙농육우」의 창간 25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모든 낙농육우인과 관련업계 관계자들이 아끼는 전문월간지로 거듭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